

작가의 집

루아크 르 그루멜레크, 이에림, 서도호

Text | Nari Park

Photography | Françoise Livinec, Galerie Karsten Greve, Lee yerim

작가에게 집은 영감의 대상이자 작업의 주제다. 지극히 사적이고 절대적인 집에 대한 기억은 평생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예술가들의 삶과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본격적으로 ‘집’을 이야기하는 세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집은 단순한 의식주 행위의 공간이 아닌, 한 인간의 세계를 완성하는 절대적 가치임을 느끼게 된다.

‘집’을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들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 그 이상이다. 직간접적인 형태로 거의 모든 이들이 자신이 몸담은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업을 표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형태로 집을 작업의 중심축으로 삼는 작가들의 작업물은 우리에게 집의 의미와 문화, 시공간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건넨다.

“몸이 겪는 감각적 경험이 가장 많이 배어 있는 곳이 집이다. 집이란 과연 무엇인가? ‘현대성(modernity)’을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발터 벤야민은 그 조건을 ‘소외와 고립’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주체가 체감하는 공간과 연결시켜 설명했다. 대도시에 사는 현대인은 집에서조차 소외와 고립을 느낀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가장 친근한 공간인 집에 대한 기억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대미술 거장들의 공간을 다룬 <코끼리의 방> 저자 전영백의 말처럼, 지금 우리에게 집에 대한 의미를 환기하는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추려본다.



Loic Le Groumellec_Maison_2013_lacquer on canvas_120 x 110 cm_courtesy Françoise Livinec Gallery



루아크 르 그루멜레크

“프랑스인에게는 집을 뜻하는 ‘홈home’보다 ‘메종maison’이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내포한다. 메종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자급자족의 공간이 아닌, 한 가족의 역사를 집대성한 시적 공간과도 같다.” 지난 KIAF 기간에 방한한 프랑수아즈 리비네크Francois Livinec 갤러리 큐레이터의 말은 프랑스인에게 집은 단순한 삶의 공간 이상의 공간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35년간 붓을 들어온 프랑스 중견 화가 루아크 르 그루멜레크Loic Le Groumellec의 작업에서 이는 더욱 확고해진다.

흑백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간결한 모노크롬 화풍을 선보여온 작가는 콘크리트로 제작한 캔버스에 옷칠을 더한 ‘메종’ 시리즈를 선보여왔다. 삼각꼴 지붕과 그 밑을 떠받치는 사각 도형은 극도의 미리멀리즘을 표출하는데, 이 완벽한 정형이 평평한 대지 위에 자리 잡은 안정적인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뉴욕과 파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루아크 르 그루멜레크에게 집은 선과 면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하루 중 산책하기 위해 작업실을 나와 내면의 질문과 맞닥뜨리는 명상은 그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 이룬 정형, 직선으로 완성한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오브제다. 나는 단순히 집이라는 구조물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영혼을 채색하고자 노력해왔다.” - 루아크 르 그루멜레크 -